

## 0.17의 차이

*The difference of 0.17*



글 | 李順鍾  
(Lee, Soon Jong)

정보통신기술사  
선명통신기술사사무소 대표

E-mail : daom99@paran.com

“자네 기술사라고 들어봤는가?”

“그거야 기술계통의 최고 높은 자격증 아니던가?”

“그렇지, 그런데 기술사 합격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아는가?”

“여느 국가자격제도처럼 60점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응, 잘 아는 이가 기술사시험에서 59.83을 맞아 0.17의 극미한 차이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 아닌가. 무슨 시험이 백 미터 달리기 경주도 아니고 말이야. 더더군다나 이 시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100분 단위로 보는데 순전히 논술형 시험이라 하더군 그래.”

“거 참, 그 친구 딱한 일일세그려. 현대 채점방식이 어떻게 그런 희한한 점수가 나오는가?”

“채점은 3명의 채점위원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군. 그러다 보니 평균을 냈을 때 소수점 이하가 생기는 거지. 웃기지 않는가? 단 0.17 부족이라니 말이야.”

“웃기는 문제가 아니고 좀 안타까운 얘기로운데. 근데 좀 안됐지만 60점이 만점은 아니잖은가. 솔직히 그이가 실력이 출중하면 톱걸이할 게 아니라 70점, 80점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판엔 그렇지. 한데 말이야. 100점 만점인 기술사 시험에서 이 점수를 취득한 이가 1964년 첫 시험 이래 단 한 사람도 없다더군 그래. 아니 80점 이상을 취득한 예도 거의 없다더군. 생각해보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주관식으로 정해진 페이지 수를 채워야 하니 어떻게 완벽한 답안이 나오겠는가. 점수 분포대를 보면 60점대가 태반이고 어찌 다 특출한 점수를 받는 경우 70점대가 있다고 하더군. 그런 점에서 보면 참으로 아까운 점수가 아니겠는가?”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군. 그래서 그 친구는 어찌 되었는가?”

“공단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과거에도 점수에 불만인 사람들이 종종 행정소송을 하곤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더군. 설령 승소하여 다시 채점한들 더 나은 점수를 주겠는가 이 말이야. 결국,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게지.”

“안타까운 노릇일세그려. 그 친구는 두 번 다시 공부하기 싫겠군.”

“공부가 무언가. 0.17 고배 이후에 공부는 고사

하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더군. 맥없는 운명을 탓하며 하는 일마다 나는 왜 안 될까. 푹푹 한 내 인생아, 하면서 자책하더라 이거야. 그야말로 쌍병이 났던 게지.”

“폐인 다 되었겠구먼.”

“그리고선 통 그 친구 소식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지 뭐냐. 알고 보니 산에 들어가 공부해서 1년 만에 기어이 합격했다는구먼.”

“우와 굉장한 인내력을 지닌 사람이로군, 그래.”

“왜 아니겠는가.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군.”

「나이 사십에 시작하여 3년 동안의 거듭된 낙방으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었어. 그런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는 나를 절망케 하더군. 단순히 실력이 아닌 운명처럼 생각되는 거야. 의지가 완전히 꺾여 버리지 않았잖나. 처음엔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지. 나에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야. 소수점 차이로 행불을 좌우하는 공단의 운영 방침의 탓, 말도 안 되는 채점제도의 탓, 지지리도 박복한 내 운명 탓. 심지어 조상 뒷자리 탓까지 하지 않았잖나. 도대체 주관식 시험에서 0.17만큼의 실력이란 게 무어란 말인가. 하여 기술사와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기로 맘을 먹었다네. 건설은 어려워도 파고는 쉬운 법. 포기하니 맘이 오히려 활기분하더군.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어느 때건 불쑥불쑥 화병처럼 가슴에서 무언가 치 올라 와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인 게야. 우울증까지 생기더군.

‘넘어진 자 그 넘어진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 라는 옛말이 번뜩 떠오르더군. 문제를 극복해

야지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일테면, 고약한 두엄을 깨끗한 천으로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야.

또한, 가만 생각해 보면 1%의 정성이 부족했던 거야. 조금 쉽게 본 과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집중을 덜 했던 거지. 하다못해 글씨라도 더욱 정성스레 썼어야 하는데 말이야. 내 답안지는 채점자를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그때부터 공부하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어. 나 중심에서 채점자 중심으로 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은 셈이지.

“뉴욕에 폭풍우는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 때문이라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교훈이군 그래.”

“그것뿐인가. 인생지사 실패는 늘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와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방식인 게지. 인디언의 기우제는 절대 실패가 없다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 말이야. 결국,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인생에는 과정에 차이만 있을 뿐 패배는 없겠지.”

“오호라, 멋진 얘기군. 현대 그이는 지금 무얼 하는가?”

“44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군. 수필가가 되겠다고 반쯤 미쳐 있던데. 0.17을 극복한 미더운 사람이니 무얼 하든지 잘하지 않겠나?”

“허어,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 타성에 젖은 내 삶이 반추(反芻)되는군. 도전, 새로운 도전이라…….”

〈원고접수일 2010년 3월 23일〉